

4월은 과학의 달...“광주과학관서 즐거요”

2019 봄 과학문화행사 개최 ‘사이언스 투게더’ 주제 은 가족 참여할 다양한 행사

매년 4월21일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과학의 날’이다. 지난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 날짜를 기념해 이듬해 4월21일을 ‘1회 과학의 날’로 정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음 달 20일부터 5월6일까지 봄 과학문화 주간으로 정하고 ‘2019년 봄 과학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사이언스 투게더’(Science Together)를 주제로 온 가족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광주과학관 거울못·야외광장 일대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생활 속 재료를 활용해 여러가지 배를 만들어보고 RC워터젯 보트를 체험한다. 또 미니 페트병을 활용한 물로켓을 만들어 직접 발사하고 드론 체험장에서 비행과 경주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은 잇따라 강단에 서서 관객들을 만난다. 먼저 오는 4월13일 오후 2시 상상홀에서 김현승 선임연구원(과학일반)을 시작으로 조숙경 책임연구원(과학일반·20일), 김진아 관장(수학·27일), 허상욱 연구원(화학·5월4일)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며 이야기한다.

거울못 모험배 창작 경진대회 예선·결선은 오는 4월20일·5월5일 치러진다. 지난 26일까지 모집한 호남권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단체참가자를 대상으로 대상(광주시장상), 금·은상(광주시교육감상), 동상·입선(광주과학관장상)



국립광주과학관이 오는 4월20일부터 5월6일까지 과학의 달을 맞아 ‘봄 과학문화행사’를 연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수상자를 가린다. 4월21일 오후 2시 과학관 상상홀에서는 ‘곤충 기증 특별기획전’을 위해 곤충을 기증한 김원기씨가 18번째 ‘필 사이언스’ 강연자로 나선다. 곤충 기획전은 오는 4월18일부터 5월26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앞서 20일에는 수학생물학과 함께하는 무료 수학체험 ‘매스 버스킹’이 야외 전시장에서 열리고 무인헬리콥터, 드론 쇼가 과학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는 21일 과학을 다룬 연극을 과학관 상상홀에서 선보인다. ‘가족과 함께 하는 물건 뜯어보기 체험’(20·21일·사이언스 팩토리), ‘과학실험쇼!-컬러풀 레인보우’(4월2일·6월30일), ‘사이언스 버스킹-나도과학자’(4월6-14일 주말·3D영상관)도 가족과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다. 5월4일에는 광주·전남 초등생 100명을 대상으로 ‘전자과 안전 슬로건 &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야외 음악행사, 전자과 안전교육, 에코백 제작체험, OX퀴즈 대결 등 부대행사가 가족 단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리모델링에 들어간 과학관 상설전시관은 오는 6일 다시 문을 연다. 문의 062-960-612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상으로 ‘전자과 안전 슬로건 &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야외 음악행사, 전자과 안전교육, 에코백 제작체험, OX퀴즈 대결 등 부대행사가 가족 단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리모델링에 들어간 과학관 상설전시관은 오는 6일 다시 문을 연다. 문의 062-960-612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상으로 ‘전자과 안전 슬로건 &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야외 음악행사, 전자과 안전교육, 에코백 제작체험, OX퀴즈 대결 등 부대행사가 가족 단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리모델링에 들어간 과학관 상설전시관은 오는 6일 다시 문을 연다. 문의 062-960-612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폐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만들고 섬 지역 방문 교육 ‘에듀 버스’ 지원 전남도, 과기부 지원 ‘SW 미래채움 사업’ 선정

전남도가 폐교를 활용해 소프트웨어(SW) 교육센터를 만들고 섬 지역 방문 교육을 위해 ‘에듀버스’를 지원한다. 도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정부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전남도, 인천시, 강원도, 충북도, 경남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지역별 SW 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3년간 센터당 35억원을 투입해, 각 지역에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SW 교육센터를 세우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장애인 미디어향유권 향상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 오른쪽)와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형수)은 지난 25일 복지관에서 장애인리도오제적단 등을 함께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미디어향유권 향상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시청자센터 제공>

태양계 밖 ‘확인된’ 외계행성 곧 4천개 넘을 듯

NASA, 4천번째 외계행성 맞추기 공모

태양계 밖에 있는 별을 도는 외계행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4000개를 넘어서는 전망이다. 케플러 망원경으로 찾아낸 1호 행성 약 30년 전만 해도 존재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외계행성은 1992년 첫 발견 이후 붓물 터지듯 속속 관측되고 있다. 이제는 관측만 안 됐을 뿐 우리 은하 내 거의 모든 별에 행성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됐다. BBC뉴스에 따르면 ‘미국항공우주국(NASA) 외계행성 아카이브’에 등록된 확인된 외계행성은 지난 21일 현재 3926개, 4000개까지는 불과 74개만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연료가 떨어져 지구와 영원히 작별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찾아놓은 외계행성 후보가 2423개에 달하고, 케플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차세대 행성 사냥꾼 ‘테스(TESS)’가 1년도 안 돼

443개 후보를 찾아내 4000 고지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케플러 망원경으로 찾아낸 1호 행성 ‘케플러-1658b’가 10년만에 ‘후보’ 꼬리표를 떼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지만, 후보군이 3000개 가까이 되는 만큼 곧 4000개 돌파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NASA 외계행성 아카이브는 이미 4000번째 외계행성 맞추기 공모 행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테스 이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광역적외선 망원경 WFIRST 등 차세대 우주 망원경이 배치되면 더 많은 외계행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생명체의 필수조건인 물이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생명체 거주 가능영역’에서 슈퍼지구를 찾아낼 확률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우체국 작은대학’ 12곳 개소식

아파트 경로당 방문 강의 ‘이동우체국 작은대학’도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는 광주·전남지역 ‘우체국 작은대학’이 각각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 18일 순천우체국 작은대학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12개소 우체국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우체국 작은대학’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역협력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우체국의 여유공간을 교육과 문화, 소통공간으로 조성해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 도서관 등으로 강사가 직접 방문

하여 강의하는 ‘이동우체국 작은대학’도 운영한다. 목포, 담양, 장성우체국을 비롯해 광주 하남1단지, 쌍촌주공, 광주각화, 목포상동1단지, 목포옥암2단지, 순천조례5단지, 나주용산 등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노년기 건강관리, 스마트폰 활용, 가족공예, 천연제품 만들기 등 지역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강의가 펼쳐진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우체국 작은대학은 스마트폰 활용 등 14개 과정을 운영해 18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쌍촌주공아파트 단지에 문을 연 서광주우체국 작은대학.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수목장(묘정리·이장·안치)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주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장성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